

06 선물/옵션 투자하기

‘선물(先物) 거래’란, 매매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 매매 계약의 대상물은 미래의 약속된 일정 시점에 주고받는 거래를 말하며, 농산물 도매 업자와 농부 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명 ‘밭떼기’가 초보적인 선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연초에 배추 장사가 배추밭을 눈여겨 보고, 겨울 김장철에 배추값이 크게 오를 것을 염려하여 밭 주인과 배추밭 1마지기에서 생산될 배추 전부를 100만 원에 매입한 경우를 가정합시다. 실제로 겨울철 배추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배추 장사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배추 생산량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배추밭 주인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사전에 정한 가격이 있어 마음 편하게 배추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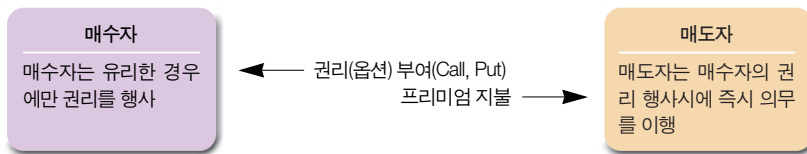
선물 거래에서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금속원 자재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품 선물 거래라 하고 통화, 금리, 주식, 주가 지수 등의 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금융 선물 거래라 합니다.(2003. 11월 현재 국내에는 주가 지수 선물만 도입) 선물 거래의 목적은 미래의 과도한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거나, 뛰어난 가격 예측을 바탕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금융 시장을 다양하고 대규모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옵션(Option) 거래’란, 문자 그대로 선택권(Option)을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주가 지수, 유가 증권 등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또는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현재 시점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 지수 옵션 거래는 주식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전체 주식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

준을 나타내는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 거래를 말합니다.

주가 지수 옵션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은 미래 종합 주가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premium)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사전에 정한 가격에 주가 지수를 살 권리(Call Option)를 매입하게 되며, 만일 미래 약속한 시점에서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살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가격에 팔 권리(Put Option)를 사 두게 되는데, 미래 시점에 가서 예상과 달리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팔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옵션 거래의 구조



가령, 현재 시점의 주가 지수가 50포인트이고, 가격은 1계약당 5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어떤 투자자가 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1년 후 시점에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매입하고, 상대방에게 10만 원을 지불한 경우, 실제로 1년 후 주가 지수가 70포인트로 상승시 2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10만 원을 제외하고 순수익은 10만 원이 됩니다. 만일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가 지수가 30포인트로 하락한 경우라면 주가 지수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굳이 행사하지 않고, 프리미엄 10만 원의 손해만 감수하고 말 것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 : 어느 특정 시점(1980년 1월 4일) 주식 시장 전체의 주식 가치 총액(시가 총액)을 100으로 하고 비교 시점 주식 가치(시가 총액)와 비교하여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인 100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코스피(KOSPI) 200 지수 : 증권 거래소가 선물·옵션 거래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표로서 산업별 대표성과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200개 종목의 시가 총액을 계산하여 산정한다.(2003.1.1 현재 삼성전자, KT, SK 텔레콤,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